

2026. 10. 22 (목)

한국 3Q GDP Preview: Another surprise

- 한국 3Q GDP: 1.3% QoQ / 3.7% YoY 예상
- 수출, 설비투자 주도 서프라이즈 지속: AI, 정보통신 + a
- 올해와 내년 성장을 컨센서스 추가 상향될 것: 내년은 3%대도 고려해야
- 시사점: 1) 재정수입 추가 확충, 2) 한은 금리인상 지연 없이 11월, 2월 인상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seunghoon.lee@meritz.co.kr

한국은행에서 10월 27일 발표되는 우리나라 3Q26 GDP는 전분기대비 1.3%, 전년 대비로는 3.7% 성장하며 기존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블룸버그 기준: 0.4% QoQ)를 크게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높아진 눈높이를 상회하고 있고, 내수 모멘텀도 지지되고 있다.

- 서프라이즈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수출이다. 3분기 통관수출은 72.2% 증가하며 당사 예상(65.1%)을 넘어섰다. 중심에는 반도체/컴퓨터가 자리했지만, 비철금속/전기기기(AI 인프라 유관), 정유(정제마진), 휴대폰(신제품) 등 품목들의 고신장이 일조했다. 이는 1분기 수준을 웃도는 수출물량 신장세(YoY)로 귀결될 전망이다,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출단가 상승은 3분기에도 명목 GDP를 20% 이상 성장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 설비투자는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는 그림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설비투자 추계지수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7~8월 각각 24.6%와 16.1% 증가하며 2분기 12.8%를 능가했다. 8~9월 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수입 신장세가 45% 전후에 달하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의 투자 모멘텀 확대를 입증해 주고 있다.
-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 감소폭 축소가 일단락되었지만, 비주거용 건물 건설 모멘텀 개선으로 숫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 데이터에서 토목과 공장/창고 부문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 이런 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민간소비는 재화 중심으로 모멘텀이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상기한 요인에 의해 3분기에도 상반기에 준하는 신장세가 기록된다면, 당사를 포함한 2026년 GDP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는 3.7% 혹은 그 이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도 3%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4분기 전망에 따라 가변적).

이러한 구도 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여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수출 호조에 기반한 명목 GDP의 20%대 고성장은 재정수입 측면에서 추가적인 호재이다. 둘째, 견고한 성장과 더불어 근원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2.5% 이상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한국은행이 인상을 미루지 않고 올해 11월을 포함하여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 3.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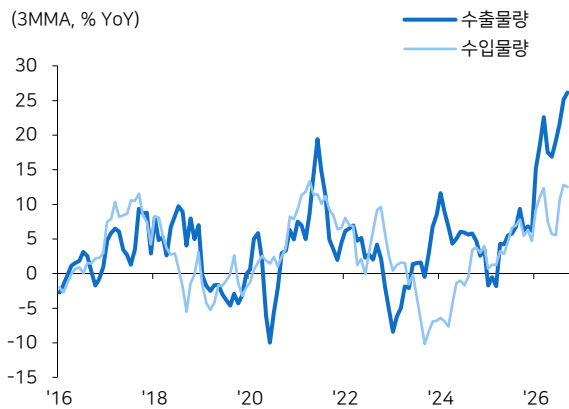
Key charts

표1 한국 분기별 GDP성장률과 3Q GDP 추정치

(% YoY)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E
GDP	0.2	0.7	2.1	1.6	3.8	3.7	3.7
(% QoQ)	-0.2	0.6	1.4	-0.1	1.8	0.6	1.3
민간소비	0.5	1.0	2.0	2.4	2.7	2.4	2.3
정부지출	2.1	2.5	2.9	3.6	3.1	2.1	2.6
건설투자	(12.7)	(11.3)	(7.9)	(7.2)	(1.9)	(1.2)	(0.8)
설비투자	4.7	2.7	0.7	(1.9)	4.4	6.3	11.9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5	4.3	6.8	4.6	11.8	8.9	13.5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6	3.4	4.5	3.9	8.5	6.2	11.3
내수기여도(재고포함, %pt)	0.0	0.1	0.9	1.1	2.1	2.2	2.1
순수출 기여도(%pt)	0.1	0.5	1.2	0.4	1.9	1.6	1.7
명목 GDP	2.9	3.4	4.8	6.3	17.1	26.4	23.7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1 한국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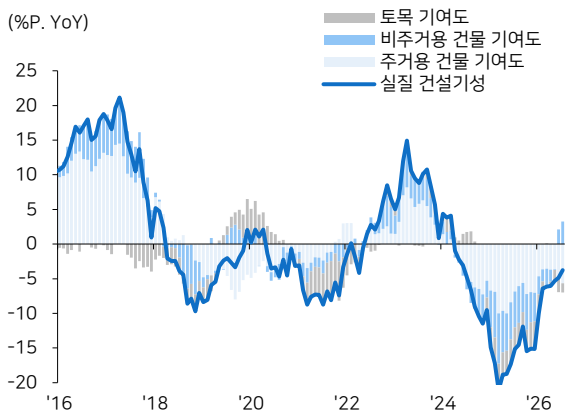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국 설비투자 추계지수 vs 운송장비 제외 자본재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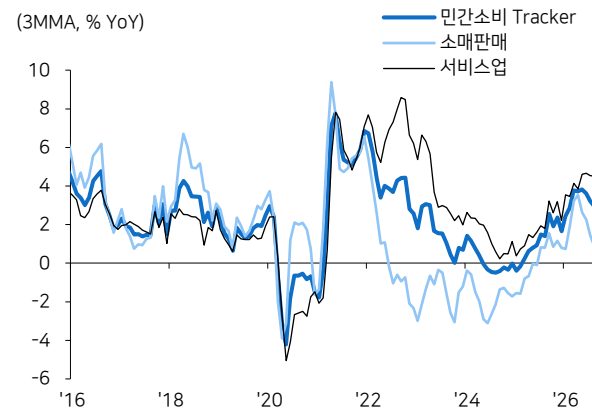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한국 실질 건설기성: 공종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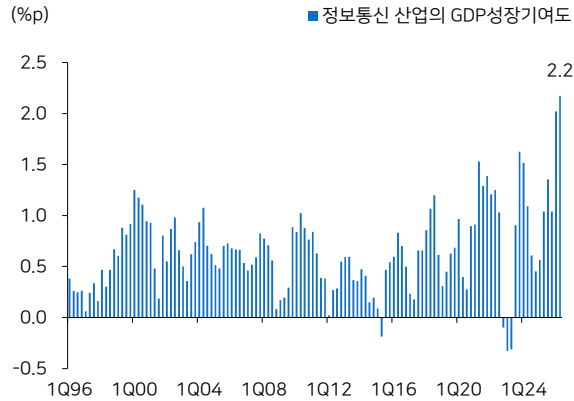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한국 실질 민간소비 Tracker: 서비스업 활동 지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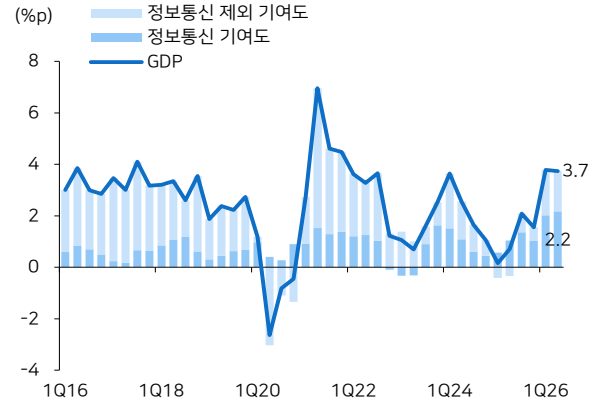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5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GDP 성장기여도 (1996~)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한국 GDP 성장률과 정보통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